

OpenDoors

08

2022

VOL. 244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Heart to Heart

"신앙의 자유를 찾아"(17)

박해와 선교현장

쿠바(Cuba)

머스카슬론(MUSKATHLON),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 축제"

현장스토리1

인도 쉐카르(Shekhar)목사, "...굳건하게 견뎌내다"

현장스토리2

인도 메흐르(Mehr)자매, "흔들리지 않는 믿음"

Ch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 위기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영복 목사

(한국오존도어 부이사장, 성실교회 담임목사)

주님의 지상 명령(마 28:19-20)은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과업이다. 더욱이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는 오픈 도어의 정신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욱 민감하게, 그리고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깨어있어야 할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 환경은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있다. 다양한 박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와 함께, 전 세계 3억 6천만에 달하는 박해받는 이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사실 기독교는 교회사가 증명하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박해가 있었고(야고보, 스테반의 순교),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 순교로 응답했던 박해의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 성장하였다(초대교회, 현대의 중국 지하교회 등).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희미해진 ‘십자가 구원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재림신앙으로 내세 소망(계 22:20)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박해와 더불어 전세계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경향성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박해의 시대를 사는 우리 이웃 형제들과, 주일학교가 축소되거나 청소년부, 대학청년부가 소멸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1)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엡 1:23)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또한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 그 다음은 이 위기의 때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웃 형제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쉬지 않는 일이며(삼상 12:23), 동시에 박해받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필요를 채우는 일일 것이다. 전 세계 교회들과 기관, 단체들이 연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알리며, 배고픈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3) 견고한 진과 같았던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때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면서 예언자적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함으로써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며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모세를 통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찬양하게 하셨던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느냐는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며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며 선을 회복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던 하나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심을 흔들림 없이 전하여 핍박받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오픈 도어”(Open Doors)가 잘 해오고 있는 일이기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Maranatha!(고전 16:20, 계 22:20)

CONTENTS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수기	04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17)"	
Heart To Heart	06
머스카슬론(MUSKATHLON),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 축제"	
박해와 선교현장	08
쿠바(Cuba)	
현장스토리1	16
인도 셰카르(Shekhar)목사, "선지자처럼 굳건하게 견뎌내다"	
현장스토리2	20
인도 메흐르(Mehr)자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희망의 선물	23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24

OPENDOORS 7가지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2022년 08월호 | 통권 244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사
 사무총장 _김경복 선교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김지옥, 김보미, 오현정, 문민환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김샛별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양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7)

홀로 나선 한국을 향한 여정

마리아 자매

돌이켜보면 나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다. 첫 탈북을 시도하여 중국에 정착한 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무렵 좋은 일자리를 주셨으며, 그곳에서 잘 정착하여 고향 땅에 있는 보고싶은 가족에게 달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생활비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공안에게 발각되어 복송된 후부터는 이 감옥 저 감옥을 옮겨 다니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으나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버티었더니 각종 반장, 주방장, 조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감방에서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하시는 바울과 같은 루디아 선생님을 뵈면서 신앙의 진수를 배울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일찍 출소한 이후로는 생계를 위해 뼈뺌하게 살았지만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던 것이 돌이켜보면 참 축복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에서의 삶은 막막하고 고되었다. 먹고 사는 일이 막연하여 어렵고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화전민 생활을 하면서 감자, 옥수수를 오십 키로 정도 가득 싣고 산비탈을 내려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갔을까 싶기도 하다. 그래서 북에는 살찐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싶었다. 부지런한 우리 남편은 이곳 저곳에서 다양한 기술을 배워와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어느 날부터는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하던 산 사냥 실력을 발휘하여 멧돼지와 노루를 잡아 팔기 시작했다. 산사냥은 불법이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산림보호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을 했다. 잡은 동물은 동네에서 조용히 팔거나 아니면 나와 남편이 함께 시내로 나가서 장마당에서 팔았다.

한 1년쯤 지나니 일상에도 어느정도 적응이 되고 조금이나마 주변 상황들이 파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자유가 억압된 그 땅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갈급했다.

어느 날은 집에 있는데 뜬금없이 보위부 직원이 핸드폰을 들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표면적으로는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는 중국말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으나, 나는 본능적으로 나의 반응을 보려는 술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내가 핸드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관찰하려는 수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 그런 순간 순간에 내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참 감사하다.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니 어떤 북한 여성이 중국 말로 "중국에 가고 싶다. 이곳 생활이 어려워니 중국 돈 얼마를 보내 달라." 라고 통화한 내용이었다. 나



<북한 최신형 스마트폰 평양 2423 (한겨레신문)>

는 얼굴도 모르는 그 북한 여성에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워 돈 좀 보내 달라”고만 통역해주었다.

보통 북한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 불법적으로 브로커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 수수료가 약 30%정도 된다. 10만원을 보내면 7만원만 전달받는 셈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보위지도원에게 걸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에서 빼앗기게 되고 붙잡힌 사람은 취조를 받거나 감방생활을 하게 된다. 얼마전 핸드폰을 들고 나를 찾아왔던 보위지도원은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전달받는 북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작업에 나를 동참시키고자 하였다. 오고 가는 돈의 액수가 많을 때 자신에게 귀찮게달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없는 돈을 갈취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인간다움이 사라진 이 부패한 사회 속에 더 이상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

자유로운 땅 한국에 가겠다는 막연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북한 땅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 함께 한국으로 가자,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남편과 아이들과 떨어져서 살아보니 너무 힘들더라, 우리 다 함께 한국으로 가자, 그러나 남편은 그때마다 거절했다. 물론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붙잡혀 즉시 처형을 당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다. 처자식의安危를 생각한 남편은 끝내 탈북하기를 거절했고, 나는 그 때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져만 갔다. 때로는 남편이 비겁하다고까지 생각했다. 나는 한번 가족과 떨어져 살아보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남편이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괜한 거절감과 상실감이 들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기를 원할 정도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웠다. 남편이 가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출소한지 1년이 넘는 시점부터는 감방 동기들이 사는 옆동네를 자주 오가며 브로커들과의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가끔씩 브로커들을 도와 사람들을 데리고 보위지도원들 몰래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도록 돕는 일을 했다. 중국과 같은 외부 세상과 연락을 하려면 깊은 산 속에 올라가야 했는데 그러려면 의심받지 않도록 화전민 행세를 하며 허름한 옷과 운동화, 호미 또는 낫과 같은 도구를 준비해야 했다. 꼭두새벽부터 나가서 산을 타면 중국이 내다보이는 도착 지점에 점점 즈음 도착하고, 연락을 한번 하고 내려오면 하루



<중국과 북한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 국경지대 모습>

가 꼬박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나 스스로도 연락을 취했으며 브로커들을 도와 북한 사람들과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챙겨 돈을 벌었다. 운이 안 좋아서 순찰대원에게 걸리면 뇌물을 주어야 했다. 반을 주고 반은 내가 챙기는 식이었다. 이렇게 한 푼 두 푼 번 돈으로 살림도 보태고 탈북 자금도 모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산사냥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웬 낯선 사람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남편이 그날 사냥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은 산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근처 마을에서 잠시동안 머물러야 하는 일이 생겨 우리 집에 신세를 지러 온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브로커일지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혹시 내가 자주 다니는 옆동네에도 잘 아는 브로커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마침 알고 있다며 집주소를 주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우연한 계기에 적절하게 찾아온 기회였다.

얼마 후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명식이라는 브로커를 만났다. 명식이라는 사람은 주로 밀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루트와 해당 브로커들을 잘 알았다. 그 친구에게는 한국에 간다는 말은 안하고 중국에 벌여 놓은 돈이 있으니 탈북을 하는 비용과 방법을 상세히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몇 년 전에 탈북했을 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달랐다. 비용은 갈수록 올랐고 경비도 삼엄했다. 이제는 국경 경비대원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몰래 넘어가기가 불가능했다. 당국에서는 국경 경비대 군인들에게 탈북한 사람들을 적발하면 포상휴가를 주고 대학까지 보내준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통제가 심했다.

그즈음부터 한국을 가려고 먹은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나 혼자 힘으로 그 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 교회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후원 부탁을 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수 개월간 명식이라는 친구와 연락하면서 몇몇 브로커들과 안면을 트며 그 인맥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계속)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 축제”



지난 2020년 4월 예정되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순연되었던 “제2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별칭: 오픈도어 익스트림 기도축제)가 강원도 연천과 철원에서 9월26(월)-28일(수)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유럽에서 참가하는 40여명과 탈북 청년/대학생 20명, 한국참가자 30명이 함께 어울리는 인종과 문화와 사상을 초월한 통일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제1회 머스카슬론 (Muskathlon) 한국대회(2019년 10월5일-12일)는 3년전에 열렸다. 한국오픈도어와 네덜란드 오픈도어 그리고 스포츠 전문이벤트 기관인 4M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분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철원과 연천에서 그 문을 열었다. ‘머스카슬론’은 극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의 인권신장과 재정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4M’의 스포츠 이벤트의 일종이다. 그러나 오픈도어와 만나면서 전세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는 익스트림 기도축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전세계적으로 가장 박해가 심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그룹을 초대하게 된다.

첫번째 그룹은 유럽에서 오는 40명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평소 북한교회와 성도들의 박해와 혹독한 삶의 이야기를 듣

고 감동을 받아 북한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다. 참가비 약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한다. 또한 개인당 1만 유로(약 1,3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개별적으로 모금하고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주변의 친구와 가족 혹은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매달 10유로에서 20유로를 2-3년간 모금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이번대회에 딸과 함께 참여한 애리나(Arina)는 참가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한국방문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었고,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삶을 보았다. 그에 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한줌 모래처럼 미미한 것일 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이래로 이들에 대한 연민과 기도가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 그 여행의 여운이 너무 강렬해서 이번에 딸까지 데리고 같이 참석했다.”

두번째 그룹은 한국에 생활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이다. 특별히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20명의 참가자들을 초청한다. 북한을 떠나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는다. 한국교회와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보듬기에는 삶은 여전히 힘겹다. 그러나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머나먼 유럽에서 이들을 찾아오고, 이들과 함께 몸을 부딪치며, 고향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이는 먼 훗날 통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날 것이다.





세번째 그룹은 한국교회의 참가자, 자원 봉사자들이다. 통일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는 유럽인들과 탈북 청년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기억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박해받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뜨거운 기도, 탈북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백마고지, 노동당사를 직접 보고, 듣고, 만나는 과정에서 역사의 호흡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삼자가 어울려 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대회와 마찬가지로 '머스카슬론'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에서 북한 지하 교인들을 통해 북한 교회의 실상을 듣게 된다. 또한 탈북민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제를 나누며, 탈북 청소년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연천 오대산 캠핑장으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고, 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어서 DMZ 통일전망대, 백마고지 유적지, 노동당사를 방문하게 되고, 철원평야와 북한의 휴전선 너머 평강공원이 고스란히 보이는 소이산에 올라 북한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각각 산악 마라톤 6km, 10Km, 21Km & 42Km, 산악 하이킹 10Km, 21Km, 42Km & 63Km, 산악 자전거 21Km, 42Km, 63Km & 120Km등에 참여한다. 이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통해서 박해받는 북한 지하 교회의 어려움과 고통을 몸으로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대회 참가자 마리엥 로덴버그는 그 때의 감동을 이렇게 전했다. "DMZ 가까이에서 달렸는데, 달리면서 북한 주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단지 우리가 달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분의 능력으로 무언가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행함으로 인해 그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달립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사무총장 김경복 선교사는 이번 대회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에서 오신 외국인들은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기도와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탈북 청년들 그리고 한국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이 한국교회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기도의 불길과 헌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하 교회를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머스카슬론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응원하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장 소

경기도 연천 고대산 캠핑 리조트

날 짜

2022년 9월26일(월) ~ 28일(수) / 2박3일 일정

참가인원

선착순 30명
(한국인 참가자 + 20명(탈북청년) + 40명(해외참가자))

일 정

노동당사/백마고지/소이산 땅밋기 기도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
캠핑

참 가 비

25만원

신청기간

7월4일(월) ~ 8월5일(금)까지

대회종목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산악하이킹
*필수 아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QR코드)

*자세한 내용은
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바로가기

쿠바 (Cuba)



폭력과 압력의 수준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X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쿠바는 1959년 이래 단일 정당인 쿠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으며, 쿠바 공산당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와 교회를 통제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공산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특별히 시위자들에게 더욱 강경하게 대응한다.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 활동가들이 정권을 비판하면, 체포되어 징역형과 죽음의 위협을 받거나 지역 자경대로 활동하는 정부지지자들과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박해를 받는다. 교회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규 교회의 등록을 대채로 거부한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비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회들은 벌금을 부과받거나 등록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하며, 재산 몰수, 공격, 강제 철거의 대상이 된다. 결국 가정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된다.



국가 정보

국가 지도자: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주석

(President Miguel Diaz-Canel)

인구: 11,500,000 명

기독교인 수: 7,127,000 명 (62.9%)

주요종교: 기독교

정부형태:

공산주의 정부

주 박해 요인: 독재정권, 공산주의, 탈공산주의의 억압, 세속주의에 의한 탄압



쿠바의 상황

주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7,127,000	62.0
무신론자	450,000	3.9
불가지론자	1,940,000	16.9
기타종교인	1,940,000	16.9

* 기타종교인에는 중국 민속종교인, 신흥종교인, 시크교인, 심령교인, 도교인, 유교인, 자이나교인, 조로아스터교인을 포함한다.

2018년, 쿠바 국회는 만장일치로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iaz-Canel)을 국가주석과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디아스카넬은 쿠바의 정치 지도자이자 국가의 대표가 됨으로써, 카스트로(Castro) 가문의 60년 장기 집권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2019년, 쿠바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주석과 부주석직을 회복하는 새로운 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단일 정당 사회주의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2019년 10월, 43년만에 국무총리직을 부활시켰고, 같은 해 12월, 마누엘 마레로 크루즈(Manuel Marrero Cruz)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었다.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가 2021년 4월 쿠바노동당 총서기에서 물러났지만, 노동당 지도부는 국가 전략 계획 수립에 관해 라울 카스트로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헌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

되었지만 국가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쿠바는 미국과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외교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새로운 제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상업적, 경제적, 재정적 통상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또한 쿠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다.

인권감시단체들은 쿠바 정부가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과 대중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며 처벌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처벌의 범위에는 임의 체포, 인신 공격, 여행 제한, 가정과 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 환경이 열악한 교도소에 수감 등이 포함된다. 더욱이 쿠바 정부는 인권 감시활동을 합법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 인권감시단체들의 법적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Factbook)에 따르면, 쿠바 모든 남성들은 2년 동안의 군대 복무의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거의 불가능하다.

공산주의 정부와 반대되는 이념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교회가 정부의 명령과 이익에 복종하는 가에 달려 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민주주의, 시민사회 참여, 인권, 결혼에 대한 성경적 모델과 생명

의 존엄성에 대한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쿠바 사회에서 압박과 적대를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 활동가들과 지도자들 또한 압력을 받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벌금부과, 재산 몰수와 강제구금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다.

지역별로 다양한 박해 상황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지수 조사 기간 동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사건들은 국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수도와 쿠바 동부지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공동체들

역사적 전통이 있는 기독교 공동체

(Historical Christian communities)

로마 카톨릭, 정교회를 비롯해, 미국성공회,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가 포함된 성장하고 있는 개신교 교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감시당하며, 시위자들(특히 청년 시위대)을 도운 사실이 발각되거나 공산주의 사상에 반하는 내용의 설교 및 자료가 발견되면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된다. 또한 정치화된 교회 지도자들과 이념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단체들의 비판을 받으며 공산당 정권 지지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교회 구성원이나 목회자가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쿠바 교회협의회(the Council of Churches of Cuba)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교회들은 미등록 교회나 비-전통적 기독교 교회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범주에는 산테리아(Santeria: 아프리카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쿠바의 종교)교도나 공산당이었던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나 한 교파에서 다른 교파의 교회로 옮긴 기독교인들이 포함된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속한 교회가 정권에 반대하는 교회이거나 교회 목회자가 반혁명주의자로 간주되는 경우, 개종자들은 정부관료들에게 거절당하고 보복 대상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협박과 적대감을 조성하여 기독교 개종을 막고 교회 성장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들

(Non-traditional Christian communities)

이 범주의 교회 공동체는 주로 오순절교회와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 그리고 침례교회들이 포함된다. 이 교회들이 정상적

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다른 교회 공동체들과 동일하게 시민사회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범주의 교회 공동체원들과 목회자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활동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박해와 학대를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정 교회로 모임을 갖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범주의 교회 공동체들은 정부와 공산당원들에게 발각될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공산주의의 탄압:

쿠바혁명(1953-1958) 이후, 쿠바는 공산주의국가로 변해갔다. 물론 원래의 공산주의 이론과 다르게 조정된 부분들이 있지만, 공산주의의 정치적 경제적 모델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새롭게 제정된 헌법은 쿠바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을 주관하도록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종교단체들





도 예외없이 공산당의 이념에 복종하는 것이 헌법상 명시된 의무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집권당의 핵심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표적이 되고 탄압을 받는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길 원하는 크리스천은 누구든지 혁명의 적 혹은 반역자로 여겨지는 것이다.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와 공산당에 대한 우상화 정책 외에는, 종교가 쿠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민 통제와 관련하여 정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정권 친화적인 교회 활동들은 허용된다. 정부는 일부 급진적 압력 단체들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반기독교적 가치의 이데올로기들을 환영한다.

독재정권:

이 유형의 박해 요인은 공산주의와 탈공산주의 탄압의 혼재로부터 나타난다. 공산당이 헌법으로 인정된 유일한 정당이기 때문에, 공산당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은, 믿음 때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권의 적이라는 꼬리표가 붙

는다. 새로운 헌법은 쿠바혁명을 정치적 과제로 영구화하고 전면적 감시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보호한다. 이와 같은 전체주의적 통제는 수년 간 과도한 억압을 초래했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 기독교인과 교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재들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정권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제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수준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정부패와 숨방망이 처벌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모든 정부조직을 통제하며, 그 밖에 법의 통치를 존중하는 어떤 독립적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카톨릭을 포함한 모든 교단의 기독교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쿠바 내에는 없다.

남성과 여성 박해의 차이

여성

기독교 여성들은 낙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상대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로 종종 모욕을 당한다. (기형아 출생률 0% 유지라는 쿠바정부의 목표에 따라 태아가 유전적 기형아일 경우 의무적으로 낙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여성 운동가들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해고당하며, 협박과 감시를 받는다. 경찰은 교회를 오고 가는 Ladies in White의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폭행을 일삼는다.

- 정부에 의한 구금/투옥
- 육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언어 폭력/폭언

남성

기독교인 남성들, 특히 목회자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기독교적 신념에 따라 정부의 행동을 비판함으로써 인해 쉽게 체포되고 박해를 당한다. 남성 기독교인들은 폭행/구타, 체포, 기독교 서적 압수, 재산 파괴 및 살해 위협을 경험한다. 모든 쿠바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군복무 중 기독교 신앙이 드러날 경우, 더욱 박해와 탄압에 취약해진다. 기독교 신앙에 따른 군대 내 차별과 박해의 정도는 지휘관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다른 사회 서비스복무로 군복무를 대체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 기독교 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
- 교육에 대한 차별/박해

- 직장/구직/사업 영역을 통해 경제적 박해
- 국가/도시에서 강제 퇴거 압박
- 정부에 의한 구금/투옥
- 군대 강제 징집
- 육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언어 폭력/폭언

최근 5년간 월드와치리스트(WWL) 순위 및 박해 지수 동향

년도	월드와치리스트 박해순위	박해지수
2022	37	66.05
2021	51	62.10
2020	61	52.04
2019	59	48.55
2018	56	49

반체제 인사들을 진압하려는 시도와 함께 쿠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탄압이 증가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쿠바 독재정권은 공산주의 원칙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확고하게 반대입장을 취하는 기독교 지도자와 인권활동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2021년 7월 시위 이후 더욱 심해졌다. 마구잡이식 벌금 부과, 치밀한 감시, 교회허가 취소, 종교비자 거절을 포함하는 엄격한 조치들은 압박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강제구금과 정신적/육체적 학대와 같은 폭력적 사건들의 증가 또한 야기시켰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의 사례들

- 2021년 2월, 데이비드 알베리즈(David Alvarez) 목사는 시멘트와 벽돌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국가 보안 요원에 의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주변 이웃이 지역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 2021년 7월,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한 목회자는 잠시 동안 구금되었고,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구타당해 고통을 호소했다.
- 2021년 3월, 공산당 정권 지지자들이 쿠바 선교교회와 목회자 거주지에 돌을 투척하여 지붕이 파손되었다. 쿠바선교회 회장 목회자는 쿠바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쿠바 정부가 반대하는 복음주의 교회 운동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WWL 년도	사망한 기독교인 수	공격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수	국내 이재민이 된 기독교인 수
2022	7	44	4	18
2021	5	13	4	12

위 표는 월드와치리스트 조사기간 동안 보고된, 신앙을 이유로 발생한 폭력에 대한 일부 범주만 포함한다. 보고되지 않는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위 숫자들은 최소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사건의 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징적 숫자인 10, 100, 1000과 같이 표기하며, 실제로 발생한 사건 혹은 피해를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다. (년도 별 조사 기간은 2022년도 자료 기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이다.)

개인 영역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들은 정부에 의해 아주 면밀히 감시된다. 검열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되었고, 그 결과 인터넷 접속과 여행/이동이 금지되었다. 실제로, 모든 쿠바 국민들은 소셜미디어 사용과 전화 내용들이 정부 당국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박해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 사이에 자기검열을 장려하려는 것이다. 기독교 인권 운동가들과 정부에 대항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임의 체포나 가택연금을 당하며, 이것은 결국 기독교인들을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경찰의 철저한 감시 때문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기도 한다.

가정 영역

국가는 모든 쿠바 어린이들의 주요 교육자로 여겨지며 이런 시절부터 쿠바 혁명 이념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 공산주의 교육과목은 학교의 필수 과목이다.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학생들은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해야 한다. “우리는 체게바라(Che Guevara)처럼 될 것이다.” 자신의 자녀들을 국가의 공산주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교육으로 양육하려는 부모들은 양육권을 잃게 되거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쿠바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믿음/신념과 확신에 따라 양육할 수 없다. 부모들에게는 공산당정권의 세뇌 교육에

반대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보호의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은 ‘혁명의 대적들’의 자녀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직면한다. 정부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자신 때문에 정부로부터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압박을 당하기도 한다. 이것은 가족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체 영역

정권의 지지자들과 무장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한다. 정권에 반대하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의견을 표출하는 기독교인들은 반체제주의자로 간주되어 감시대상이 된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쿠바 혁명수호위원회(Committees for the Defense of the Revolution: CDR)는 정부의 주요 정보기관이며, 일반 시민들이나 공산당 무장조직, 정부관료 그리고 때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체제 전복적 반-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을 제거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필수 과목으로 마르크스 사상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강제 주입식 교육에 반대하면,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위협을 당한다. 공무원들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활동을 허가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품요구는 '개인적이고 임의적인 협의'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종교 행사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확산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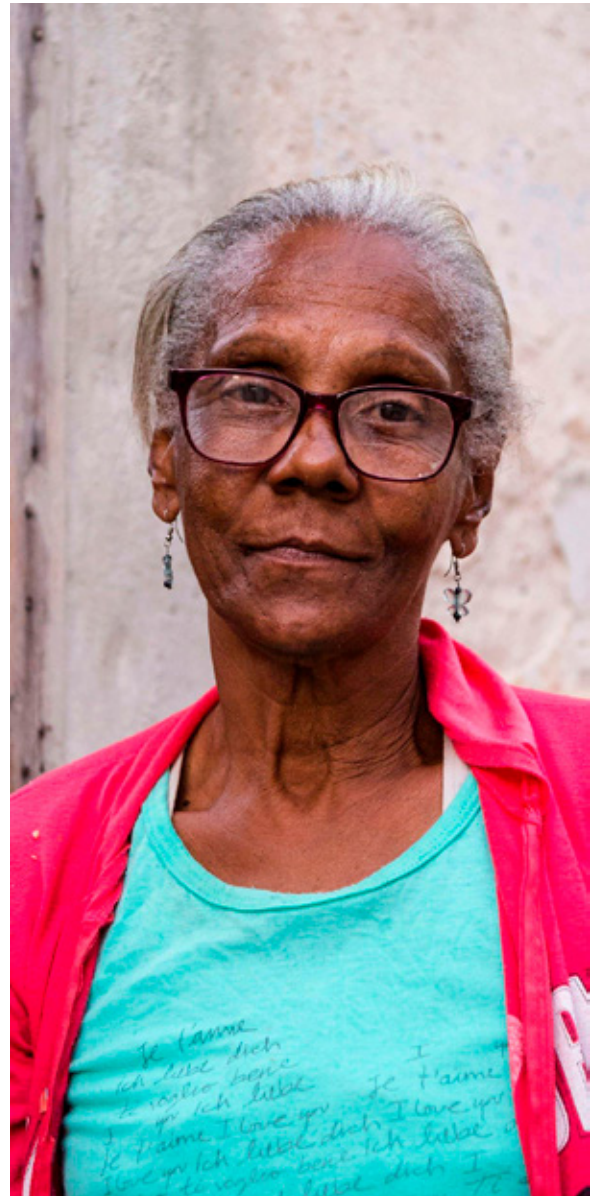
국가 영역

쿠바정부는 최근 들어 특별히 '반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령 370조를 시행하면서 모든 쿠바국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기독교인들, 기독교단체들, 종교의 자유를 변호하는 활동가나 기독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정부의 인권/시민권 침해,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함, 공산주의 체제 포기 필요성이나 카스트로 가문의 스캔들 문제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박해에 직면한다. 이러한 박해에는 체포, 차별, 인신공격, 임의구금, 벌금부과, 고소, 여행/이동 제한, 검열 등 많은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제재와 박해를 당하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 가족들은 등록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이며, 특히 쿠바 복음주의연합(Evangelical Alliance in Cuba)과 연관된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불공정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쿠바정권이 모든 사법체계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지며 정권세력은 면책특권을 보장받는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재판의 정당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 정부나 기관의 개입을 막는다는 핑계로 국제사회의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 영역

합법적으로 등록된 쿠바의 교회들은 대부분 1959년 공산주의 혁명 이전에 등록되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 등록 신청은 타 지역의 교회와 교단이 같거나 유사한 목

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신청한 교회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예를 들면, 공산당 이념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 그렇게 거절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미등록된 교회들은 '반군/반역자'로 취급되고 벌금형에서부터 재산몰수와 기관 폐쇄까지 다양한 범주로 처벌을 받는다. '혁명의 적'으로 여겨지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어떠한 승인이나 허가 요청도 정부가 임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는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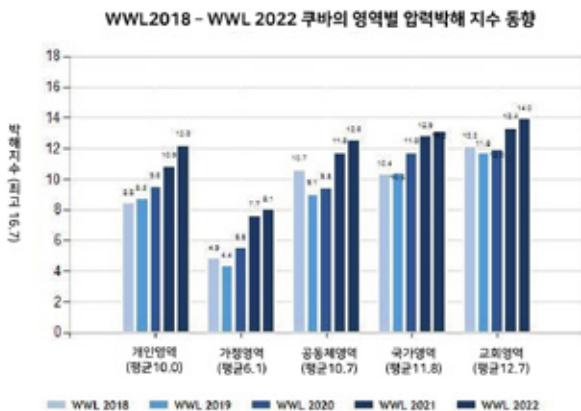


5년간 평균 박해지수 동향

쿠바 연도별 폭력 박해 지수 동향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 (16.7/만점)
2022	12
2021	11.3
2020	9.7
2019	8.9
2018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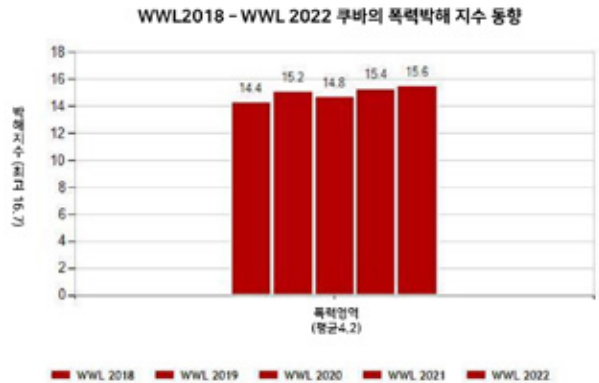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수 년 동안 기독교 박해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5년 인도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균 박해 지수는 큰 변화 없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 평균 박해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년간 영역별 압력박해 지수 동향



지난 5년 간의 압력박해 지수 그래프는 5가지 영역 모두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주목해보아야 할 압력박해 영역은 교회와 국가 영역이다. 이것은 정부가 공산주의의 가치나 정권의 독재적 조치에 반대하는 교회 내의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침묵시키고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년간 폭력박해 지수 동향



위 그래프는 처음 3년 동안 폭력박해 지수가 다소 안정적이었지만 2021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쿠바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교회 및 다른 시민 사회 구성원들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거부를 고려해 볼 때, 쿠바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을 침묵시키고 배신자/반역자로 간주하는 기독교인들과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협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른 소수 종교들의 상황

미국 국무부 IRF 2021 쿠바 보고서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Cuba Report 2021)에 따르면, 여러 산테리아(Santeria: 아프리카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쿠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교) 종교 지도자들과 사역자들, 특히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쿠바자유요루바협회(Free Yoruba Association of Cuba: 지금의 나이지리아 남서부지역에서 유래한 요루바족의 전통 종교)의 회원들은 정부로부터 빈번하게 박해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 국가 안보국은 '유일한 신은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쿠바 혁명의 지도자로 혁명 이후, 첫번째 국가 원수) 뿐이다'라고 선언하며, 지난 3월 자유 요루바(Free Yoruba) 지도자 2명을 구금한 것을 포함하여 자유 요루바 지도자들을 감금, 위협, 감시하고 있다. 쿠바 국가 안보국은 2021년 5월에도 코란을 연구하는 등록되지 않은 이슬람 단체의 종교 모임을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종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범죄 혐의 처벌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쿠바의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픈도어는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통해 박해받는 쿠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경과 성경 공부 자료 배포
- 생계지원 프로젝트

- 성경교육훈련
- 교회 지도자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
- 교회의 자립성 향상을 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



“선지자들처럼 굳건하게 견뎌내다”

쉐카르(Shekhar) 목사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영적으로 거의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그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교회 지도자 쉐카르 목사는 자신이 박해를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쉐카르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예배와 기도모임을 갖는 일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도가 오픈도

어 월드와치리스트(WWL2022) 박해지수 10위에 올라 있는 박해가 극심한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경찰관들이 쉐카르 목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쉐카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가, 내가 감당해야 할 박해의 때가 된 것 같네요.”

성경책들이 압수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었고, 쉐카르 목사 일행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진짜 폭력과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쉐카르는 4시간에 걸쳐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대나무줄기로 심한 구타를 당해 고막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다음 날, 쉐카르 목사 가족은 당장 마을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이렇게 작별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쉐카르 목사는 말합니다. “울부짖으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 곳을 떠나왔습니다. 이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역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다친 몸 치료를 위해 산더미 같은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세를 내고 식료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쉐카르 목사의 아내는 이번 일의 충격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정말 기적적이게도, 이들 가족에게 도움이 절실한 때에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 주었습니다. 오픈도어 현지 교회 파트너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쉐카르 목사 가정에 의료지원과 생필품들을 지원하였으며, 삶이 안정되고 자립하는 동안 필요한 거주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처 입은 새를 돌보듯 여러분들은 저희 가족을 보살
펴 주셨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쉐카르 목사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을 아름다운 그림언어로 묘사합니다. “새들이 날개를 다치면 스스로 일어서고 날 수가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 삶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있었지만 직면한 상황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상처 입은 새를 보살피듯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셨고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와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지역 교회 공동체를 강제로 떠나야 했지만, 열방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의 일부임을 늘 기억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믿음과 확신은 쉐카르 목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박해는 놀라운 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일반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여전히 끔찍합니다. 쉐카르 목사와 같은 교회 목회자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쉐카르 목사는 절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쉐카르 목사는 전합니다. “인도 땅의 우리 인도 기독교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잔혹한 구타와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의 선지자들처럼 굳건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 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쉐카르 목사님과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쉐카르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인내와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픈도어 후원자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쉐카르 목사님과 가족, 더 나아가 인도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머물며,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이들의 삶과 영을 끊임없이 비취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땅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끊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후원하기



UNSHAKEABLE

현장스토리2

FAITH

흔들리지 않는 믿음

메흐르(Mehr)* 자매와 같은 인도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매우 조직적이고 잔인하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인도 땅의 크리스천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한 젊은 크리스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져 있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주변으로 목을 졸랐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에게 행해지는 인도의 박해 현장 모습입니다. 인도의 박해는 폭력을 수반하며, 기독교인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상대로 매우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집니다. 전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잔혹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끔찍한 또다른 박해 스토리,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해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인도의 그리스도인 메흐르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로 그녀의 삶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메흐르 자매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힌두교인으로 성장하다

메흐르의 어린 시절은 인도의 다른 많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힌두교 지역 공동체에 속한 힌두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그녀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 날 그녀는 평화와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뒤,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들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정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다

인도의 기독교 박해는 2014년 이래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도어선교회는 인도를 위한 ‘임팩트 인도 캠페인(Impact India Campaign)’을 계획하고 지난 3년 동안 인도 기독교 박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도와 후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힌두트바(Hindutva)라고 불리는 사상을 기반으로 인도 사회에서 ‘기독교의 정신과 영향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인도는 2022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2022) 박해지수 순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사회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단절됩니다. 취업, 공공의료는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살인에 이르는 폭력과 공격에 의한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거룩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기도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메흐르 자매의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 괴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목격한 메흐르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때 괴한들은 메흐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괴한들은 저를 무자비하게 때렸고 천으로 제 목을 조르려 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옆에서 있던 어떤 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고, 구타로 인한 부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메흐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당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메흐르는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머니와 여동생 역시 괴한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탄압

메흐르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녀의 가족들을 향한 학대와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메흐르자매의 가족들은 경찰당국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흐르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직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메흐르를 폭행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병원에 나타나,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뇌물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틀 날, 모든 치료는 끝이 났지만, 그녀는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져 급기야 자살을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픈도어 현지 교회 파트너들 또한 그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랑으로 회복되다

메흐르는 고백합니다. “눈 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기도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활기를 찾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메흐르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계셨고, 오픈도어 선교회는 메흐르 자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었고, 그녀를 기독교인이 차별 받지 않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직업을 잃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자,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필요한 생필품과 식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지금도 메흐르 자매와 가족들은 오픈도어 현지 교회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메흐르 자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저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제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적인 후원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기쁨과 목적

메흐르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 간증하며,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만든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폭력과 박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전세계의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인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메흐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혼자 아픔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위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모든 환경들이 저를 그리스도의 희망의 미래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제 삶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은, 예수그리스도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인도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PLEASE PRAY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잔혹한 폭력으로 치료 중에 있는 메흐르 자매의 육체적/정신적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메흐르 자매가 인도 기독교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어,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인도 전역의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GIVE 후원 부탁드립니다.

- 10만원으로, 기독교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직업훈련과 사업체운영을 통한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 13만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긴급 구호식량, 의약품 및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6만원으로, 20명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에 대한 성경적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큐알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후원하기로 연결됩니다.

※ 문의: 후원문의(010-7548-3171) / 사무실 (02-596-3171, 070-7522-3171)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28

쿠바 교회의 파올로(Paolo)*목사는 전합니다. “자유를 향한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경찰의 폭력과 총격, 살인으로 이어지는 탄압으로 인해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과 11월, 수천명의 쿠바 국민들이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이 시위 중 비밀 경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붙잡혔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교회는 수십년 동안 감시와 억압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공개적인 위협과 끊임없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루이즈(Luiz)*목사를 비롯한 쿠바교회 목회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쿠바에서는 법적으로 교회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때로는 차고에서, 때로는 주변 이웃들의 집을 옮겨가며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라며 루이즈 목사는 쿠바 교회의 현실을 전했다.

FREEDOM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1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전화번호	
출금계좌번호	은행		주소		
출금액	10,000원	출금일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 (한국오픈도어선교회)